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공업포장개발부

손기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실하다’

-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상공부장관상 수상

누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댓가를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보람으로 여김과 동시에 그것으로 더욱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국내 포장업계에도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내고 있는 포장인들이 많다. 회사의 구성을 보면 급세 일의 성과를 느낄 수 있는 분야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언뜻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는 분야가 있다.

국내 포장업체들 단독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수렴하여 포장기술 지도, 포장개발 및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공업포장개발부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있는 한 연구원이 있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손기주 연구원은 입사한지 7년만에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고 지난 5월13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상공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제겐 너무나 큰 상입니다. 저희 공업포장부에는부장님도 계시고 유능한 선후배들이 많은데 제가 상을 타 죄송스럽습니다. 이번상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우리 개발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겸손의 말로 수상소감을 간단히 밝혔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큰 몫을 하고 있는 상공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손 연구원이 속해 있는 공업포장개발부는 부서의 책임자인 부장을 비롯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업체 기술지도 사업을 주로하고 있다.

손 연구원은 공업포장개발부 내의 포장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주 업무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포장재료의 물성검사와 유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시험해

보는 일이다.

가장 기초단계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 특히 포장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하나하나를 배워간다는 점과 자신이 처리한 일이 포장산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그는 무엇보다도 기쁘다.

그는 회사내에서 컴퓨터 광으로 통한다. 줄곧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보니 컴퓨터에 깊이 빠졌다는 그는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니 만큼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료들을 그냥 널려두기 보다는 그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유용한 정보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얼마전까지는 준비를 조금씩 했는데 요즘은 업무가 바빠 미루게 됩니다.”라고 아쉬워하며 포장산업계의 자료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누구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개발원 포장실험실에서 포장재료의 물성 검사와 유통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 시험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손기주 연구원은 국내 포장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으로 각 기업의 정보공유에 대한 마인드 부재를 들었다. 컴퓨터 매니아이기도 한 그는 그래서 각종 포장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은 없다며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로 푸는 것이 가장 좋다고 살짝 귀뜸을 기자에게 하기도.

업무량이 많아 짜증을 내기 보다는 차근 차근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는 한 내성적인 성격과 외성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일하다 보니 저절로 성격이 활발해졌다고 한다.

“제가 감히 포장산업을 평가하는 것이 우습지만 모방이 많고 자체개발이 절대 미흡하다는 것과 연구분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포장패턴을 따르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그들의 포장과 우리와는 다른 면이 많으므로 우리의 독자적인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점차 제품에 있어서 포장의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국내

포장산업도 각 분야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제품의 노하우나 생산량 등을 밝히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런 점이 국내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감출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국제 경쟁 사회에서 우리기업이 살아남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라며 현 국내 포장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을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국내 포장관련 잡지들을 늘 가까이에 두고 도움을 받고 있다며 포장재질에 대한 물성이나 특성을 많이 게재해 줄 것과 내용면에서도 포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신소재에 대해 소개하는 지면을 늘려 줄 것을 부탁하며 말을 맺었다.

그는 공업포장개발부 내에서도 인심좋은 큰형으로 불리울 만큼

동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와 같은 존재다.

작은 외모를 소유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믿음직스럽다고 그와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은 입을 모았다.

올해로 서른 한살 미혼인 손기주 연구원은 매스컴을 통해 과감히 공개혼장을 내밀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일이 좋아 일에 빠져 결혼에 소홀했지만 이제는 어머니같은 여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고 밝히며 몇적은 듯 웃어 보였다.

인터뷰를 채 마치기도 전에 업체에서 손 연구원을 찾아와 서둘러 인터뷰를 끝내 아쉬움이 남았지만 고객과 열심히 상담중인 그를 잠시 지켜보며 뿌듯함과 든든함이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 때문일 것이다.

이선하기자